

**시 실**

**兩港정책 확실한 추진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해양수산부가 광양항 개발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안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 무역항 기본 계획 정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항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3선석을 줄인 20선석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용역으로 지난 1980년대 이후 정부 항만정책의 기간이었던 양항(Two Port)정책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광양항의 경우 계획대비 40% 축소를 주장한 반면 부산항은 당초 개발 예정인 30선석 중 단 3선석만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결과가 그대로 정책해 반영될 경우 정부의 항만 정책은 사실상 부산항을 집중 개발하는 원 포트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안보상 긴급 상황이나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양항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의 광양항 예상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선석 개발보다는 물동량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광양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서 30%대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상태인 부산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예상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광양항 개발계획만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양항은 수심이 깊고 태풍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어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도한 비용이 투입된 부산항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상하이에 대규모 항만을 개설하는 등 물량공세에 나서고 있다. 선석만 늘려서는 중국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쟁력있는 국내 항만을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드인사’내막 보여준 實勢들의 양주파티**

참으로 씁쓸하고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장면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 옛것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당의원에 의해 지적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양주파티가 그것이다. 친여 인터넷언론에 의해 처음 보도된 이 파티는 당사자인 이종석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이 참여정부 실세라는 사람들의 ‘끼리끼리 문화’와 그에 따른 ‘코드인사’의 저열한 내막을 보여준다.

이장관은 5·31선거 전날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함께 일했던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국정원 간부, 군 장성들과 함께 서울 모 한정식 집에서 군남 양주 10병을 마시며 참석자중 몇몇에 대한 승진 축하파티를 했다. 여당의원은 국회에서 당시 이미 북한 미사일 위기가 진행중이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기도 한 이장관의 처신을 나무랐지만 국민들이 더욱 허탈감을 느끼는 까닭은 그자리에서 오간 대화

다. 보도된 바로 이장관은 “인수위 출신들이 군과 국정원, 통일부 등에 핵심 멤버로 요소요소에 있다. 인수위 멤버는 내가 챙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리에서는 “지방선거는 쳐도 상관없다.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는 말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른바 실세라는 사람들이 한사람당 7만원짜리 한정식에 봉사료 6만원인 여급들의 시중을 받으며 군인들이 마시라고 세금을 면해주는 양주를 10병씩이나 가져와 잔을 돌리는 가운데 끼리끼리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고약한 단합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운동권 인사들과 좌파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참여정부의 코드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이번 양주파티같은 뒤통수 치듯 못한 패거리 모임에서 국가요직의 나눠먹기가 이뤄진다면 이런 세도정치와 다를바 없다. 이장관의 부인대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無 等 鼓**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구황제 펠레, 명성과 달리 그도 한 때 축구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기까지 했던 가슴 아픈 일이 있다. 맨발로 축구를 해야 할 만큼 가난했던 소년 펠레는 열다섯에 브라질의 명문 산토스의 선수가 됐다.

어느 날 감독은 청소년팀 소속 펠레를 어린이팀 경기에 출전시켰다.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 펠레를 투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펠레는 청소년팀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고 후반전이 끝날 무렵 동점을 만들 수 있는 패널리티도 놓쳤다.

경기가 끝난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평평 울었다. 어린 후배들과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으니 아무리 성장해도 인정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이르렀다. 그는 축구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짐을 싸서, 그리고 팀의 하드웨어를 하는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갔다.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네가 패널리티 실수한 것, 나도 알

아. 하지만 난 유명 선수들이 패널리티를 놓치는 것도 많이 봤어. 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는 펠레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다.

펠레는 그날 이후로 팀을 떠날 마음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무명 시절 절망할 때나 최고의 선수가 되어 자만에 빠지려 할 때면 그날의 실수와 더불어 “너도 실수할 수 있어”라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지금도 월드컵 때면 우승팀 예측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 내에서 호나우지뉴와 자신을 많이 비교하는데 대해 호나우지뉴를 치켜 세우며 겸손해 했다. 경기감독점수들이 0.93골로 호나우지뉴 0.43골에 비해 훨씬 앞서면서도 말이다.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속에 한국의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태극전사들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나 경기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펠레의 경우처럼 좌절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펠레와 월드컵**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睦**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경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데스크시각**

정기태



한국 TV에 사극(史劇)이 판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출자들은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 정치·지향적 성향이 짙게 깔려있음을 이미 간파했다. 권력투쟁이라는 큰 틀에 사랑·배신 등의 걸 가지를 붙이며 시청자를 흡인하는 플롯(plot)도 변한다. 사람들은 드라마가 설정한 암투(暗鬪)에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투영하며 몰입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은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에게 어린 왕세자를 부탁한다. 수양대군은 그러나 김종서를 살해한 후 황보인과 관서(判書) 조극관·찬성(贊成) 이양 등을 격살(擊殺)했다.

**선거 개입 묵인해선 안 돼**

친동생 안평대군도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상주(上奏), 강화도로 귀양보낸 뒤 사사(賜死)했다. 반면 승자 편에 섰던 정인지·권람·홍달손·한명회 등은 장난공

신(讒讒功臣)이 됐다.

TV가 이 계유정난(癸酉靖難·1453)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현대 작가와 PD는 특이하게도 지체 낮은 한 인물, 한명회에 주목했다. 그들은 ‘칠사동역’의 손에

‘살생부’(殺生簿)를 쥐어주고 중신(重臣)들의 생사(生死)를 결정토록 국을 전계시켰다. 이 드라마 덕분에 우리는 ‘살생부’라는 낱말을 알게 됐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은 오늘에 있어서도, ‘살생부’는 권력투쟁의 상징이며 당연한 귀결(歸結) 자리매김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다시 ‘살생부’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치열한 경합 끝, 광주·전남 15곳의 기초단체에서 수장(首長)이 바뀐 까닭이다. 당선자 측

에선 입맛에 맞는 인물로 주변을 채우고 싶을 게다. 낙선자에 줄을 뒀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하여, 민선 4기 출범을 앞두고 언론은 ‘보복성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떠든다.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다른 편에 섰던 사람들도 보듬고 나가자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극단적으로 말해 나는 ‘살생부’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원칙을 세우기 위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관료들의 선거 개입은 광주·전남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정당 가입·선거 기획·홍보물 작성·흑색선거·향음 제공·지지 호소·거소투표(居所投票)·등등. 온갖 형태의 ‘자원봉사’(?)가 활개를 쳤다.

광주의 한 구청에선 핵심 간부들이 부인과 자식까지 현 단체장 소속 정당에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다. 직위와 이름, 부인

과 아들 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보면서 나는 전율을 금치 못했다. 스스로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했던 그들은 이제, 농공행상(農功行賞)을 내심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못된 버르장머리 고쳐야**

학생들은 정치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충원(充員·political recruitment)과 통합(統合·political integration)을 꼽는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취임 후 공직사회를 다독거리고 화합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선자들이여, 입성(入城)하거든 과감한 물갈이부터 시작하라. 본분을 잊은 채 선거관에 뛰어들든 공무원은 ‘시범 케이스’로 도태시켜라. 잠시 동안의 불안정과 요동은 감내하라. 충원과 통합은 그 다음 수순이다.

‘인적 청산’ 없이는 개혁도 없다.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잘못을 덮어두면, 매번 똑같은 작태가 계속된다. 그릇된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한, 정치문화는 성숙되지 않는다.

칼문(鬪門)에서, ‘살생부’(殺生簿)를 펴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정훈야



19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에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됐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질책과 관심 속에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 만 18세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2006년 5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180조원에 달하며, 연금으로 받는 혜택을 받는 수급자만 해도 160만명을 넘어섰으며 세계 300여개의 연금금 중에도 당당히 6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연금은 시행 초기에 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성세대에 대한 보상

을, 2070년에는 39%까지 보험료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돼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안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크게 인기가 없어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상가상 시간이 흐르면 흐름수록 국민연금법 개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

**은펜칼럼**

**백강화**

나 역시 이 땅의 아줌마지만 ‘아줌마’라 불리는 게 결코 달갑지만은 않다. 아줌마란 말에서 풍기는 위양스가 왠지 극성스러울 것 같고, 이기적이며, 천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보통은 결혼한 여성들을 통상 부르는 속칭이지만 이런 좋지 않은 감(感)때문인지 나이가 어린 아줌마들엔 ‘미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불리기도 하고, 권력과 부를 지닌 아줌마들을 굳이 ‘사모님’이라는 별칭으로 차별화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내내 우리를 들끓게 했던 ‘황우석’ 사건에 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신중 그들 단계를 추구하는 이 잘 모르는 분야라 알고 싶기도 했지만,

상이 되고 있는 아줌마들이 또 한번 제대로 욕 얻어먹겠구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이란 법도 과학도 없이 제 욕심만 채우면 그만인 그런 나라란 말인가?

왜 같은 여자로서 ‘불법난자문제’나 ‘여성의 실험 도구화’등을 성토하지 않고, 여성의 몸을 오허려 상품화 시킨 일개 잔인한 사기꾼에 불구한 자를 옹호하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그 많은 목적불법의 관변단체나 선거운동 판에 아줌마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 역시나 잘 모르겠다. 그들은 인정 그들 단계를 추구하는 이상이나 선전하는 후보에 대해 잘 알기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지를 반영, 가입자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체제로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제도 도입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면서 연금재정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꼽는다.

둘째는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져 연금기금의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기금이 소진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보험료의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2050년에는 소득의 30%

다. 현재는 160만명이 연금 수급혜택을 받고 있지만, 2010년이면 300만명으로 수급자 수는 많아지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수급권의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때를 놓치게 되면 연금기금의 고갈상태가 심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급기야 제도의 존폐를 좌우하는 커다란 재앙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익산지시장〉

**아줌마의 명예 살리기**

암 환자를 돌보면서 소위 유명 학자라고 하는 분들의 실체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상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약이 나왔다고 대서특필되어 어렵게 찾아가 보면, 바로 꼬리를 내린 채 연구단체가거나 언론에서 효과를 과장시켰다는 등 변명하는 게 그들의 고작이었을 뿐이다.

황우석 사건 역시 그런 행태와 비슷했기에 주목했고 역시나 사기극으로 끝난 셈이 되었다.

그런데 TV속에선 검찰과 과학계를 못 믿고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는 막가파식 지지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친 욕설을 퍼부어 대며, 불특정의 검찰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아줌마들이었다. 그 순간 그렇게 안 해도 억울한 떨시의 대

라도 하는 것일까?

그래도 아줌마라야 정겨운 이름들도 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다 주고 싶고, 후덕한 식당 아줌마, 말은 억척스럽지만 정감 넘치는 시장 아줌마들, 한철 차 앞에서 아무 사람이나 손을 잡아 팔뚝을 대령해 주는 능력 좋은 아줌마들 - 사실 아줌마 아니면 그 것 못한다. 외로운 여행길에서 낯선 이의 이야기 들어주며 웃고 물어주는 이, 또한 아줌마 아니고선 힘들다.

이 땅의 대다수의 현실적인 암마을도 물론 모두 아줌마들이고, 본래 ‘아줌마’하면 따뜻하고 정겨운 이름이 먼저 떠올려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아줌마라 불리는 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줌마의 명예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함이 옳은 것 같다.

〈주부·2005년 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병원내 일부 몰지각 흡연자, 환자 고통 배려 아쉽다**

나이가 일흔이 다 된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해 자식들이 병원을 오가며 보살펴드렸는데, 일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워질까, 분명한 금연 건물인 병원이지만 특별히 제지하는 병원 직원이나 환자 보호자들도 없었다.

가뜩이나 기관지와 폐가 나쁜 아버지는 화장실 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짙게 나는 화장실을 골라 오르내려야 했다.

금연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시민 의식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병원은 더욱 그렇다. 면역 능력이 약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찾아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 문제다. 알아서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요즘 광장하 아쉽다.

▲이정하·나주시 대기동장실을 골라 오르내려야 했다.